제12회 비영리 콜로키움

제2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수상작 발표집

2020. 12. 18. (금) 14:00

신진 연구자

주제1 일반연구자 우수상

기부의 자발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치철학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권분론(勸分論)을 중심으로

정희철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기부의 자발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치철학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권분론(勸分論)을 중심으로-

정희철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연구의 목적

- 국가가 민간에 기부를 권유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
- 강압적 · 비공식적 준조세로 악용 or 기부를 빙자한 유착 위험
- 국가권력에 의해 권유되는 기부의 **자발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틀 확립

➔ 다산 정약용의 **권분론(勸分論)**으로부터 도출

권분과 그 폐단에 대한 다산의 인식

- 권분이란??

-수령이 진휼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부민(富民)에게 기부를 권유

-수령이 진휼용 자비곡(自備穀)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고과에 반영

-기부를 빙자하여 부민을 수탈하는 늑분(勒分)으로 변질

- 권분의 폐단 & 다산의 진단

"우리나라의 권분법은 모두 거저 주는 것(白給)이다. 거저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 주지도 않고 관에 거저 바치는 것(白納)이다"

거저 주는 것(白給) > 저항 발생

관에 거저 바치는 것(白納) > 투명성 부족으로 부패 증가

권분의 자발성 확보

- 고위층의 선제적 기부

- 수령이 기부를 요구하면서 막상 한 푼의 자금도 내놓지 않으면 반발심만 자극
- “명령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직접 먼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따르게 하는 것만 못하다(蓋以令率人 不若身先而使其從之樂也)”

  * 진요좌(陳堯佐)의 고사 인용

=> **<u>자연스런 인정(人情)</u>**

- 기부를 요구하는 쪽이 먼저 기부문화 형성의 마중물을 제공해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권분의 자발성 확보

- 유인요소의 마련

- 조선왕조의 권분은 본래 참여자들에 대한 관직 부여를 포함하는 제도. 그러나 실제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상으로 권면하지 않고 단지 위협으로만 하는 것은 사람을 가로막는 술책에 불과하다(不以賞勸 徒以威脅者 禦人之術也)”

- 권분 참여자에게는 찰방(察訪)·별좌(別坐) 등의 관직 부여하되, 조정이 시행하지 않으면 수령이 나서서 향승(鄕丞)이나 장관(將官) 직 부여

권분의 자발성 확보

- 유인요소의 마련

  - 실권이 아니라 **명예**에 초점 (매관매직과는 거리가 멈)

  - 입궐하여 사은(謝恩), 역마를 타고 선산을 찾아 성묘, 사후에 명정(銘旌)과 신주에 관직명 기입 등

  - 향촌 공동체 내에서의 인정, 사후에 문중의 핵심적 인물로 숭상

➔ 건강한 명예욕을 긍정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구상

권분의 자발성 확보

- 민간에의 위임

-관 주도의 권분과 별도로 사진(私賑) 제시. 부민에게 촌수가 먼 동성(同姓)·이성(異姓) 친척,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빈민을 연결시켜 줌

-관이 운영하는 공장(公場) 대신, 부민이 직접 사장(私場)을 운영하도록 위임

-자기와 가까운 인간에게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큰 애착을 느끼는 것이 자연적인 인정(人情) =>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부의 자발성을 확보

권분의 자발성 확보

상호 안득추 사장력(上戶安得秋私場曆)　　＊『牧民心書』「賑荒六條」 勸分

흑석리 (黑石里)	유학 안득우(상호 10촌 동생) 幼學安得雨 【上戶十寸弟】	도합 쌀 1두 8승을 받음(남정 2, 여장 2) 該受米一斗八升 【男丁二口 女壯二口】
흑석리 (黑石里)	유학 이상은(상호 이성 육촌) 幼學李尙殷 【上戶異姓六寸】	도합 쌀 1두 4승을 받음(남정 2, 여장 1) 該受米一斗四升 【男丁二口 女壯一口】
흑석리 (黑石里)	양인 이덕봉(상호의 가까운 이웃) 良人李德奉 【上戶之切鄰】	도합 쌀 1두 3승을 받음(남정 1, 여장 2) 該受米一斗三升 【男丁一口 女壯二口】

권분의 공공성 확보

- 요호(饒戶) 선발 & 기부액 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 실무를 맡은 향승(鄕丞)이나 아전들이 요호 선발에서 제외시켜주는 대가로 부민에게 뇌물 요구 잦음

  - 관권과 거리를 두는 민간 인사들 선정 ex) 향청(鄕廳)이나 향교(鄕校)에 자주 출입하지 않는 자

  - 민간 인사들의 권점(圈點)을 통해서 요호의 재산등급 파악 -> 수령이 다시 한 번 탐문해서 실정과 부합하는지 확인

  - 상등으로 선정된 요호들은 수령이 직접 초빙하여 설득

권분의 공공성 확보

- 관(官)의 중립성 유지

  - 아전, 향승, 향교의 유생, 수령의 친척, 수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양반 등이 뇌물을 대가로 요호 선정에서 빠지게 해주거나 기부액을 줄여주겠다고 제안

  - 관아에 사적으로 출입하는 행위, 향교 임원이나 문사(文士)가 수령과 사적인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엄금

  - 수령이 향촌 유력가에게 인사하는 존문(存問)도 경계

➔ 관-민의 사이에서 기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중간 수탈세력 배제

결론: 다산 권분론의 지향과 의의

- 공적인 기부 권유가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어내려면 기부를 양적으로 증대시키는 것 만으로는 부족
- 기부의 자발성과 공적 신뢰가 보존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
- 다산의 권분론은 그러한 설계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유효한 통찰들을 제공

결론: 다산 권분론의 지향과 의의

- 기부를 권유받는 대상의 **자연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구상이 필요
- **자연스러운 인정(人情)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려는 정책만이 효과적

  - 기부를 제안하는 고위 공직자층의 선제적인 기부

  - 기부에 참여할 동기 부여.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명예를 제공해주는 의례의 중요성

  - 아무 연관도 없는 대상을 향한 기부만 권장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의 자율적 기부를 권장. 국가는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매개자 역할

결론: 다산 권분론의 지향과 의의

- **절차의 공개성 확보**가 관건

  - 권유 대상자, 권유 액수 결정 과정 등 공적 기부 권유 절차 전반의 철저한 투명성

  - 관권에 접근하여 기부의 공공성, 순수성을 저해하려는 세력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Q & A

시민사회 참여 동인 분석

- NPO 가입과 공공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이주영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회 사랑의 열매 학술상

시민사회 참여 동인 분석

NPO 가입과 공공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2020. 12. 18(금)

성균관대 이주영

Contents

1 연구의 개요

2 자료 및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함의

통합(to combine)의 지식 /
민간부문의 자발적 결사와 활동 긴요

연구의 개요

NPO(Non Profit Organization)

♣ 자체 관리 규정을 갖추고, 공공 목적에 봉사

Institutionalized, Private, Voluntary, Self-governing, Non-profit distribution,

♣ 정부 기업과 다른 점은?

정부 ☞ 일반적 복지 증진

기업 ☞ 영리

♣ 시민단체, 비영리 병원, 교육기관, 종교단체 도 포함

NGO보다 큰 개념

실증분석 1

NPO의 인적 재정적 기반

실증분석 2

시민의 보유 자원 나눔

Contents

1 연구의 개요

2 자료, 분석방법, 분석 구조

3 분석 결과

4 함의

자료와 분석 방법

- 자료
  - 한국종합사회과학조사 KGSS 2012 응답자 1,275명
  - 2012년 조사, EASS(East Asian Social Survey) Network Social Capital 모듈 포함

    ☞ NPO에 대한 가담 정도, 타인에 대한 신뢰 등을 조사

- 분석법
  - 이항로짓 & Pr change

분석 구조: 종속변수

분석 1: NPO 가입 여부

① 정치모임, ② 사회봉사클럽(자원봉사단체, 비영리단체), ③ 시민사회단체·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조직이나 공식 모임 가담 정도를 이원화한 종속변수

'구성원이 아니다' '구성원이지만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구성원이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NPO 미 가입 vs. ☞ NPO 가입

분석 2: 공공 봉사활동 참여 여부

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② '스포츠·문화·예술·학술 자원봉사', ③'취약집단 관련 활동', ④ '정치 이슈 등에 관련된 활동'

☞ 4개 활동 중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 있는 경우 공공활동에 참여한 자로 분류

분석 구조: 독립변수

❶ 인구 사회학 변수: 성,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

❷ 자원 요인: 가구소득(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이자, 재산 및 임대소득, 연금, 보조금, 사적 이전 소득)

주당 노동 시간, 지난 몇 년간 가계 경제 변화 정도(0: 상당히 나빠졌다~4: 상당히 좋아졌다)

❸ 이념 및 사회요인: 비영리 조직과 장에 대한 신뢰(0: 전혀 신뢰하지 않음~3: 매우 신뢰)

이질적인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과의 의사소통 용이성, 0~3)

사람들에 대한 신뢰(0: 항상 조심~3: 항상 신뢰 가능),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0:자신만 위함, 1: 경우에 따라, 2: 남을 도움)

현 지역 장기거주 여부(0: 10년 미만),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0: 전적으로 어렵다~3: 상당히 어렵다),

정치적 성향(0: 매우 진보, 1: 다소 진보, 2: 중도, 3: 다소 보수, 4: 매우 보수), 중도 여부(0: 중도), 장기거주여부(0: 단기)

Contents

1 연구의 개요

2 자료 및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함의

기술 통계

종속변수 1

	종속변수①	명 (%)		명 (%)
NPO 가입	미가입*	1,004 명 (79.06%)	–	
	가입	266 명 (20.04%)	적극 참여	134 명 (50.38%)
			소극 참여	132 명 (49.62%)
계		1,270 명 (100.00%)		

종속변수 2

	구분	인원	%	활동 내용	인원
공공 (봉사)활동 참여 경험	없음*	935 명	73.33	–	
	있음	340 명	26.67	지역사회 봉사활동	177 명
				스포츠·문화·예술·학술	113 명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활동	199 명
				정치 이슈 관련 활동	72 명
		1,275 명	100.00		

기술 통계

- 여성 55%, 전체 연령 50.62%(남 49.15% , 여51.72%), 학력(고졸 이하 38%, 전문대 이상 38%), 직업 평균: 기술직(Blue)
  자녀 유무(무 24%, 유 76%)

- 연 가구소득(평균 340만원, 최고 4700만원), 주당 노동 시간 (평균 25.98 시간, 최대 140시간, 최소 0시간)

- 최근 가계 경제상태 변화 정도(평균 1.27='다소 나빠졌다') , 비영리 조직과 장에 대한 신뢰 (평균 2.16 = '다소 신뢰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평균 1.1=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질적인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용이성 (평균 1.38='어렵지 않다' 우세)
  사람들에 대한 신뢰(평균=대체로 조심해야 함 / 대체로 혹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쪽이 59%에 이름)

-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평균 1.76=상당히 어렵다와 어느 정도 어렵다가 다수 / 매우 쉽다는 응답 10%)

- 정치적 성향은 중도라고 보는 사람이 평균 / 매우 진보(6%), 매우 보수(8%), 다소 진보, 중도, 다소 보수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중도 성형으로 묶어보면, 중도(31%), 비중도(진보 또는 보수) 69%임

-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46%

실증 분석 1

NPO가입 여부 로짓 분석

	Model I		Model II		Model III	
	Exp(b)	S. E.	Exp(b)	S. E.	Exp(b)	S. E.
ln 월 가구소득	1.44 ***	.12	1.42 ***	.12	1.42 ***	.12
주당 노동시간 (단위: 10시간)	.97	.03	.97	.03	.97	.03
가계 경제 변화 (0=상당히 나빠졌다)	1.06	.08	1.05	.08	1.05	.08
비영리조직과 기관장에 대한 신뢰 (0=매우 불신)	.98	.07	.98	.07	.98	.07
사람들에 대한 신뢰 (0=항상 신뢰할 수 있다)	1.06	.10	1.04	.10	1.04	.10
이질적 타인과의 의사소통 (0=전혀 어렵지 않다)	.94	.11	.96	.11	.95	.11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 (0=자신만을 위한다)	1.17	.10	1.17	.10	1.17	.10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0=전적으로 어렵다)	1.11 *	.05	1.12 *	.05	1.12 *	.05
정치적 성향 (0=매우 진보)	.87 *	.06				
중도 여부 (0=중도)			1.48 *	.24	1.54	.37
중도 여부*성별					.93	.30
성별 (0=남)	.67 *	.10	.69 *	.10	.73	.21
연령	1.00	.01	1.00	.01	1.00	.01
학력(0=고졸 이하)	1.17	.21	1.16	.22	1.16	.21
직업 유형 (0=무직)	.88	.12	.89	.12	.89	.12
자녀 유무 (0=없음)	2.25 *	.59	2.21 **	.59	2.22 **	.58
Cons	.02 ***	.01	.01 ***	.01	.01 ***	.01
LR-Chi	63.16 (14)		65.20		65.25	
P-value of Chi2	0.0000		0.0000		0.0000	
N	1,270		1,270		1,270	

실증 분석 2

공공활동 참여 로짓 분석

	Model I		Model II		Model III	
	Exp(b)	S. E.	Exp(b)	S. E.	Exp(b)	S. E.
ln 월 가구소득	1.20 *	.09	1.20 *	.09	1.18 *	.08
주당 노동시간 (단위; 10시간)	.95 *	.03	.91 **	.03	.95	.03
주당 노동시간 * 성별			1.09	.05		
가계 경제 변화 (0=상당히 나빠졌다)	1.01	.07	1.00	.07	1.00	.07
비영리조직과 기관장에 대한 신뢰 (0=매우 불신)	.96	.06	.96	.06	.95	.06
이질적 타인과의 의사소통 (0=전혀 어렵지 않다)	.95	.96	.95	.10	.97	.10
장기거주	1.34 *	.19	1.33	.19	1.89 **	.36
장기거주 * 성별					.46 **	.13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 (0=전적으로 어렵다)	1.10 *	.05	1.10 *	.05	1.10 *	.05
정치적 성향 (0=매우 진보)	.99	.06	.99	.06	.95	.06
성별 (0=남)	.54 ***	.08	.43 ***	.08	.77	.14
연령	.99 *	.01	.99 *	.01	.99 *	.01
학력 (0=고졸 이하)	1.55 **	.26	1.56 **	.26	1.58 **	.26
직업 유형 (0=무직)	.92	.11	.91	.11	.90	.11
자녀 유무 (0=없음)	1.46	.33	1.52	.35	1.40	.31
Cons	.47	.30	.29 *	.18	.23	.24
LR-Chi	83.93 (13)		87.02		92.07	
P-value of Chi2	0.0000		0.0000		0.0000	
N	1,275		1,275		1,275	

실증 분석 1

NPO 가입 여부

변수	확률 변화	95 % 수준 신뢰구간	
ln 월 가구 소득	.3682	[.2428	.5536]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	.1087	[.0065	.2110]
정치적 성향	-.0856	[-.1700	-.0012]
성별	-.0623	[-.1092	-.0154]
중도 여부	.0585	[.0134	.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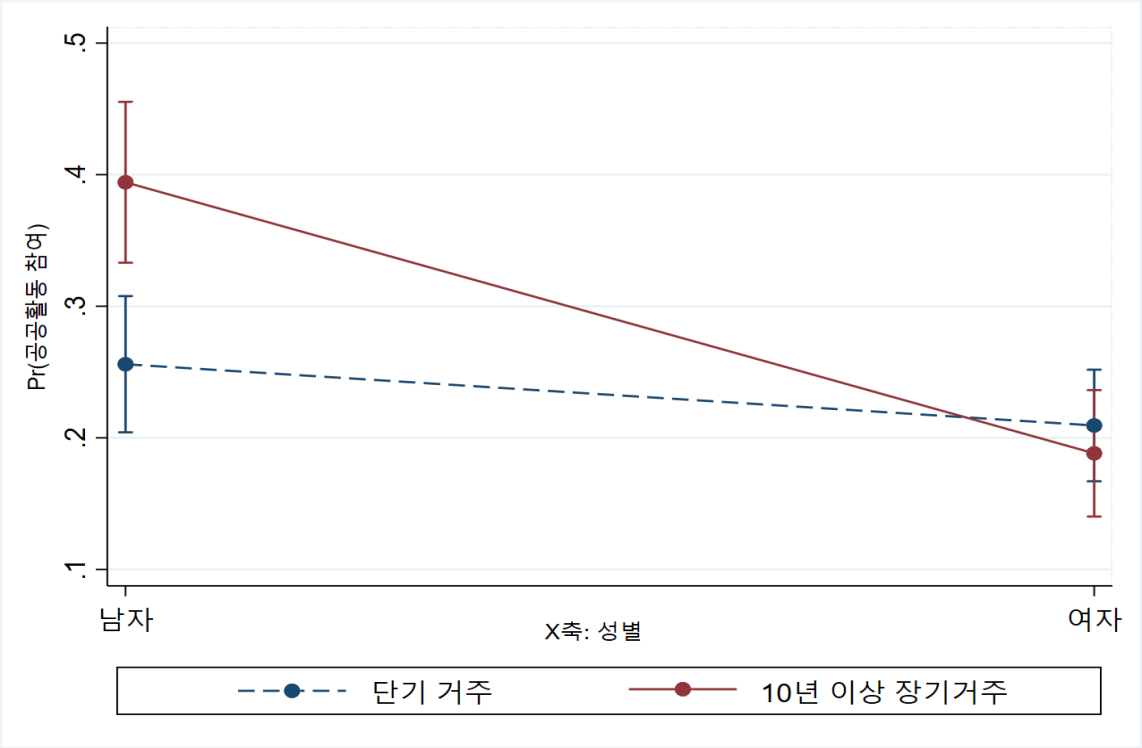
실증 분석 2

공공 봉사 활동 경험 유무

변수	확률 변화	95 % 수준 신뢰구간	
ln 월 가구소득	.2594	[.0817	.4371]
주당 노동시간	-.1257	[-.2317	-.0196]
장기거주	.0547	[.0005	.1089]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 용이성	.1161	[.0065	.2256]
성별	-.1163	[-1680	-.0645]
연령	-.1925	[-.3601	-.0249]
학력	-.0843	[-.0205	-.1481]

실증 분석 2

공공 봉사 활동 경험 유무



Contents

1 연구의 개요

2 자료 및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함의

결과 요약: 가구소득과 노동시간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NPO가입과 공공 봉사활동 참여가 활발

- 최 고소득자는 최 저소득자보다 NPO가입 36.82% ⇧, 봉사활동 참여 25.94% ⇧

  ☞ '재능 기부'인 봉사활동에도 소득의 효과 발생한 것

- 경제 상태 변화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보다, 절대 소득액의 변화가 NPO 기관 가입과 회원금 납부 등에 유의미

  ♣ 전망적 사고를 요하는 공공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들 => 시민의 동참 여부는 각자의 객관적 상태가 동인이 되고 있음

▣ 장시간의 노동은 봉사활동 참여와 부(-)의 관계

- 극단의 노동시간 참여자는 극소 노동시간 보유자와 비교해 봉사 활동 가능성 12.57% 낮음
  - ☞ 노동과 봉사활동의 대체적 관계
  - ☞ 봉사 활동 자체도 다른 여가 활동과 대체경쟁 관계이므로, 개인활동과 공공활동 참여를 놓고 벌이는 선택 문제 강함

결과 요약: 지역적 기반의 중요성

▣ **공공봉사 활동 참여에 지역적 기반이 매우 중요**

-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는 활동 참여 확률 높임

  ☞ 우리사회 공공 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적 기반 위에서 더 성공적으로 구동될 가능성 높음

- 장기 거주 효과에 성 격차 존재

  ☞ 남성에게 더 크게 나타남 => 봉사활동이 특정 성(性)에게 편향적인 업무로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

- 물리적 이동성이 강한 사회는 공공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 이슈 확인을 쉽게 하고, 의견 개진 통로 활성화시킬 필요 있음

결과 요약: 정치 성향과 시민 사회 참여

▣ 정치 성향이 NPO가입에 미치는 효과 확인됨

- 매우 진보인 사람이 매우 보수인 사람에 비해 NPO 가입 확률 8.56% 더 높음

- 중도 여부로 좁혀 본 결과, (중도 성향에 비해) 보수 또는 진보 등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NPO가입 확률 5.85% 더 높음

☞ 다만, 정치 성향이 실질적인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는 데에는 영향력을 주지 않음

▣ NPO 가입 및 공공 봉사 활동 참여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사 표출'의 통로

- 비영리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신뢰가 주는 영향력 확인되지 않음

☞ 기관 내부 운영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 오히려 비영리 기관이 표방하는 목적 및 가치 그리고 정치적 이념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국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용이하다'라고 보는 사람일수록 NPO 가입과 봉사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난 것도 그런 배경

♣ 비영리 기관 가입 등을 장려하는 힘이 진보 성향 그룹에서 더 강함 &

한국의 비영리 영역의 활동 방향과 가치가 진보적 가치와 부합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

결과 요약: 정치 성향과 시민 사회 참여

▣ 학생운동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주도한 한국 시민운동계, 권위주의 시대 정치 권력과 관료주의에 맞서 대항해온 역사적 배경 등

☞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시민사회 영역은 타 진영과 머물 수 있는 '공존의 영역 ' 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

보수성향 사람들이 NPO가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유를 추가로 더 분석해볼 가치 있음

▣ 제언: NPO는 정치적 투쟁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기술을 연마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

- 원활한 구동을 위해, 이질적인 사람들과 만나는 연습의 장이 더 많이 마련돼야 함
- 아동 청소년기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과 대면 토론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함
  - ☞ 강제로 타입의 역할을 해보며 그의 입장이 되어보기
- 온라인에서의 시민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

NPO 가입자 수와 실질적 재능 기부가 더 많아지기 위해선,
기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정치사회적 타자와의 공존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

Thank You

개인 나눔 행동의 잠재전이분석(LTA)을 통한 종단적 변화

– 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가?

권재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사랑의열매

개인 나눔 행동의 잠재전이분석(LTA)을 통한 종단적 변화

– 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가?

권재기

고려대 교육학 박사

18 December 2020

Outline

- 주요관심과 연구목적
- 나눔행동의 추세, 관계와 지속성, 개념 틀
- 연구방법
- 연구결과와 논의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주요관심과 연구목적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주요관심과 연구목적

1. 주요관심

- 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
- 최근까지 논의된 나눔 행동의 관계와 지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함.
- 자원봉사와 기부의 참여 경험이 다음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눔 행동의 양상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가정.
- 이러한 접근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과 시점에 따라 나눔 행동이 어떻게 이동, 전이하는지를 유형화하여 탐색하였음.
- 그리고 도출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 정신건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2. 연구목적

- 14년동안 한국 국민의 개인 나눔 행동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집단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나눔 행동을 오랜 기간 지속하는 힘은 무엇인지, 중단하거나 다시 참여하거나, 또는 한번도 나눔 행동을 하지 않는 이들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함.

- 이를 토대로 개인 나눔 행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 나눔 행동의 양상을 통해 탐색된 집단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나눔행동 추세, 관계와 지속성, 연구 개념 틀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1. 나눔행동 추세

- 본 연구에서는 나눔 행동을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 자원으로 서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현금과 같은 물질 기부 와 노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음.
  - 나눔 행동의 실태와 추세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2016)의 조사,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4.5%, 2013년 32.9%, 2015년 27%로 개인의 기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11년 34.5%, 2013년 20.1%, 2015년 18.6%로 나타나 개인의 자원봉사에 참여확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2. 나눔행동의 관계와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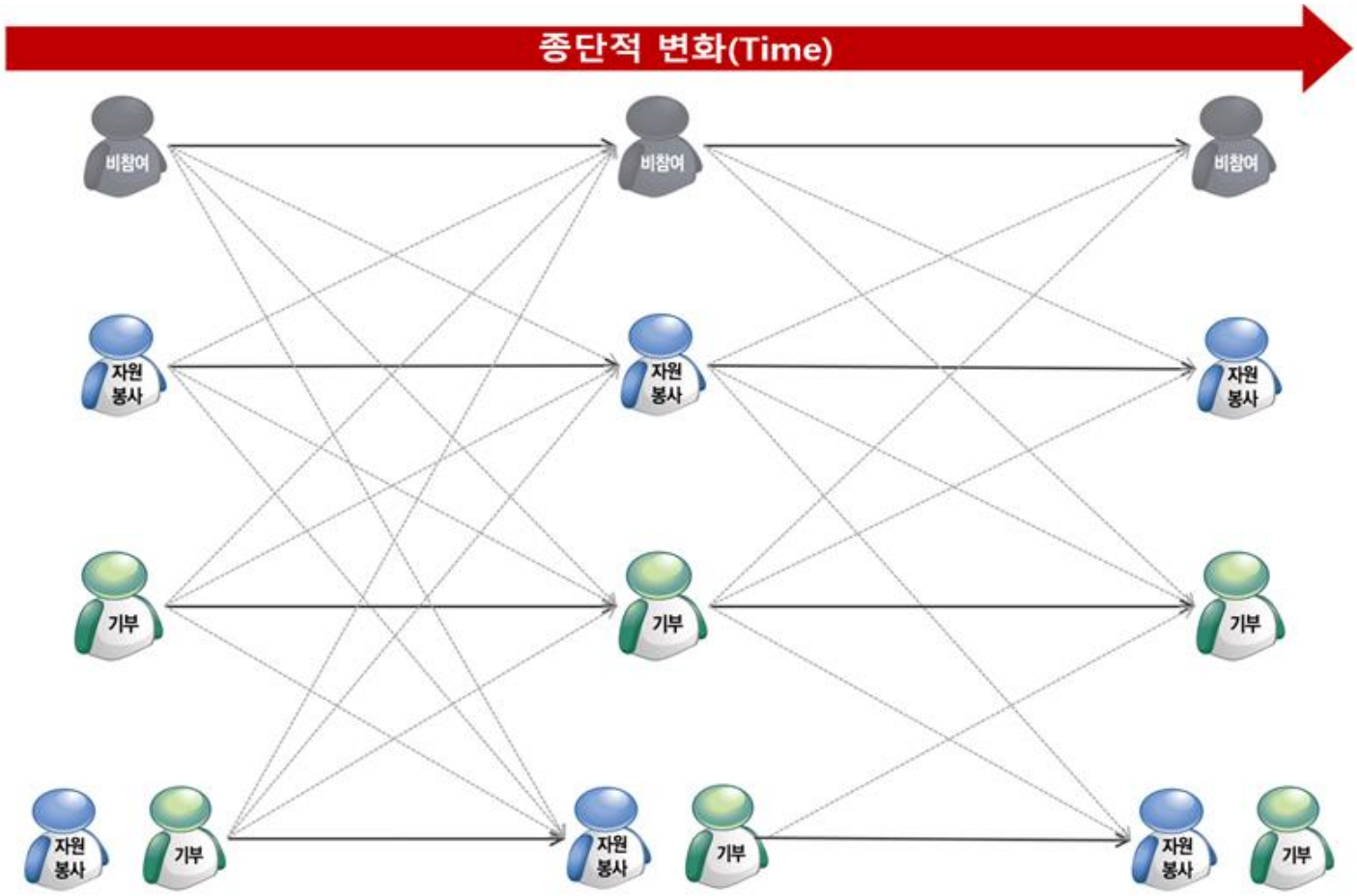
-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는 국내외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는 이슈
- 나눔 행동으로 기부나 자원봉사 중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대체적(또는 보충적) 관계와 기부와 자원봉사를 모두 수행하는 중복적(또는 결합적, 보완적) 관계로 크게 구분.
- 나눔 행동의 참여는 개인에 따라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속성을 보이기도 함.
-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6.9%로 나타났음. 나눔 행동 참여 경험은 지속성과 관련이 있으며, 기부를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이상철 외, 2010).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 기부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다음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상철 외, 2010).
- 기부참여자의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기부 미참여자의 자원봉사의 참여율보다 높아 기부참여자가 자원봉사에도 적극 참여.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50.8%가 기부에 참여, 자원봉사의 미참여자는 22.1%만이 기부에 참여.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28.7% 포인트가 높아 자원봉사참여자의 기부 참여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음(나눔 실태조사 결과, 2018).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3. 연구의 개념 틀



[그림 1] 나눔 행동의 종단적 변화양상에 대한 개념적인 틀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방법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n Welfare Panel Study) 자료 활용
- 개인 나눔 행동(기부, 자원봉사)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1차~14차 자료를 활용
- 최종 분석에 투입한 데이터는 총 16,736개
-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특성은 <표 1>과 같음
- 결측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a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ion; MI)으로 처리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방법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분포(n=16,736)

구분		n	%
지역	서울	2,868	17.1
	수도권(인천, 경기)	3,545	21.2
	부산/경남/울산	2,870	17.1
	대구/경북	2,094	12.5
	대전/충남	1,429	8.5
	강원/충북	1,222	7.3
	광주/전남/전북/제주도	2,708	16.2
가구 구분	일반가구	10,786	64.4
	저소득층 가구	5,950	35.6
가구 형태	단독	2,522	15.1
	모자	231	1.4
	부자	73	.4
	조손가구/소년소녀가장	87	.5
	기타	13,823	82.6
기초 보장 수급 형태	해당없음	15,317	91.5
	일반수급가구	1,172	7.0
	조건부수급가구	120	.7
	특례가구	127	.8

구분		n	%
연령	20대	851	5.1
	30대	1,869	11.2
	40대	2,789	16.7
	50대	2,701	16.1
	60대	2,331	13.9
	70대	2,631	15.7
	80대 이상	3,564	21.3
성별	남	7,513	44.9
	여	9,223	55.1
결혼 상태	비해당(18세 미만)	951	5.7
	유배우	10,279	61.4
	미혼	2,551	15.2
	이혼/별거	844	5.0
	사별	2,111	12.6
건강 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	863	5.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498	20.9
	보통이다	2,468	14.7
	건강한 편이다	6,978	41.7
	아주 건강하다	2,929	17.5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방법

구분		n	%
종교	없음	8,065	48.2
	있음	8,671	51.8
장애 여부	무	15,401	92.0
	유	1,335	8.0
최종 학력	무학	2,296	13.7
	초졸	2,893	17.3
	중졸	1,832	10.9
	고졸	4,585	27.4
	전문대졸	1,708	10.2
	4년제 대졸	3,062	18.3
	대학원(석/박사)졸	360	2.2
직종	관리자	317	1.9
	전문가 관련 종사자	654	3.9
	사무종사자	1,055	6.3
	서비스 종사자	788	4.7
	판매종사자	767	4.6
	농림어업종사자	1,787	10.7
	기능종사자	721	4.3
	기계조립종사자	770	4.6
	단순노무종사자	1,620	9.7
	무응답	8,257	49.3

구분		n	%
고용 형태	한시적	2,838	17.0
	비전형	779	4.7
	정규직	1,808	10.8
	무응답	11,311	67.6
근로 시간 형태	시간제	560	3.3
	전일제	4,865	29.1
	무응답	11,311	67.6
재산 구분	0원	4,092	24.5
	100만원 미만	840	5.0
	100~200만원 미만	234	1.4
	200~300만원 미만	113	.7
	300~500만원 미만	160	1.0
	500~800만원 미만	109	.7
	800~1000만원 미만	29	.2
	1000만원 이상	100	.6
	무응답	11,059	66.1
		16,736	100.0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2. 연구변인

가.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 자원봉사는 '1년 동안 자원봉사를 몇 회했는지'에 대한 횟수를 참고하여 참여 여부(0회=비참여, 1회 이상 =참여)로 가공
- 기부는 '1년간 얼마정도 기부했는지'에 대한 연간 총액 응답을 참고하여 기부 여부(0원=비참여, 1만원 이상=참여)로 가공
- 14년간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에 대한 상관분석결과, 모든 시점에서 자원봉사와 기부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나. 신체. 정신건강 특성

- 건강만족도는 1개 문항이고, 응답척도는 모두 5점(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 행복감은 12차년도부터 조사가 실시된 변인으로서 문항수는 1개이고, 응답척도는 10점 척도(0=최악의 상태, 10=최선의 상태)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
- 우울은 총 11개 문항이고, 문항의 예로는‘상당히 우울’,‘마음이 슬펐다’ 등이다. 응답척도는 4점 척도(1=극히 드물다, 4=대부분 그랬다)이고, 평균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방법

<표 3> 신체 · 정신건강 특성의 기술통계치(*N*=16,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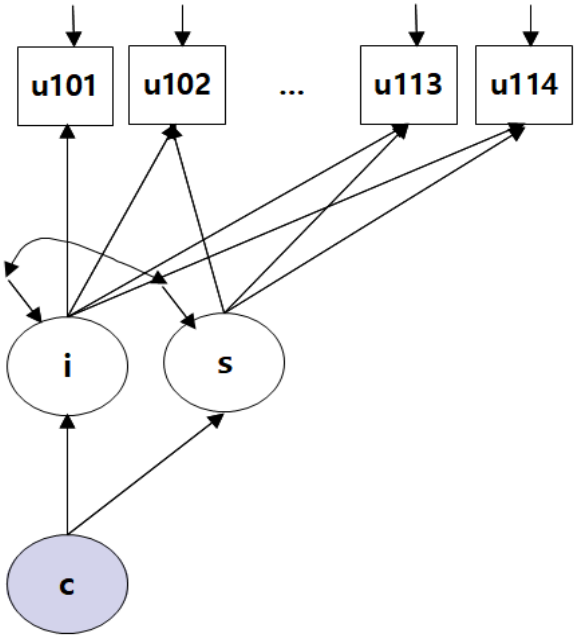
	건강만족도					행복감				우울				
	M	*sd*	*Min*	*Max*	신뢰도	*M*	*sd*	*Min*	*Max*	*M*	*sd*	*Min*	*Max*	신뢰도
1차(2006)	3.08	1.16	1	5	.807					1.54	.55	1.0	4.0	.888
2차(2007)	2.99	1.11	1	5	.789					1.53	.53	1.0	4.0	.869
3차(2008)	3.06	1.09	1	5	.798					1.47	.48	1.0	3.9	.863
4차(2009)	3.12	1.07	1	5	.788					1.46	.48	1.0	4.0	.865
5차(2010)	3.26	1.03	1	5	.798					1.40	.47	1.0	4.0	.862
6차(2011)	3.28	1.01	1	5	.802					1.37	.44	1.0	4.0	.855
7차(2012)	3.20	1.02	1	5	.82					1.33	.41	1.0	3.6	.857
8차(2013)	3.19	1.02	1	5	.814					1.34	.44	1.0	4.0	.874
9차(2014)	3.16	1.00	1	5	.817					1.39	.44	1.0	3.7	.856
10차(2015)	3.28	0.97	1	5	.801					1.32	.43	1.0	3.9	.885
11차(2016)	3.27	0.97	1	5	.803					1.32	.43	1.0	4.0	.886
12차(2017)	3.23	0.97	1	5	.808	6.12	1.80	0	10	1.31	.43	1.0	4.0	.886
13차(2018)	3.27	0.96	1	5	.811	6.34	1.74	0	10	1.32	.43	1.0	3.9	.889
14차(2019)	3.18	0.97	1	5	.976	6.30	1.80	0	10	1.32	.43	1.0	3.9	.991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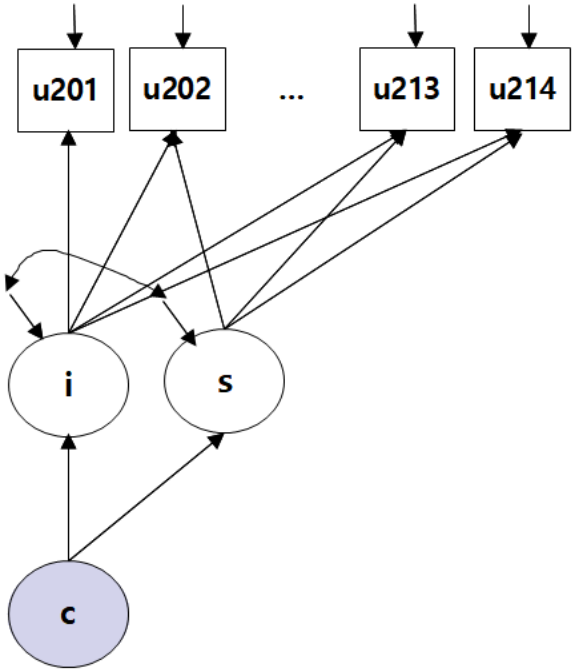
3.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법

첫째, 나눔 행동은 종단적 변화양상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Muthén & Muthén, 1998-2015)을 활용하여 분석.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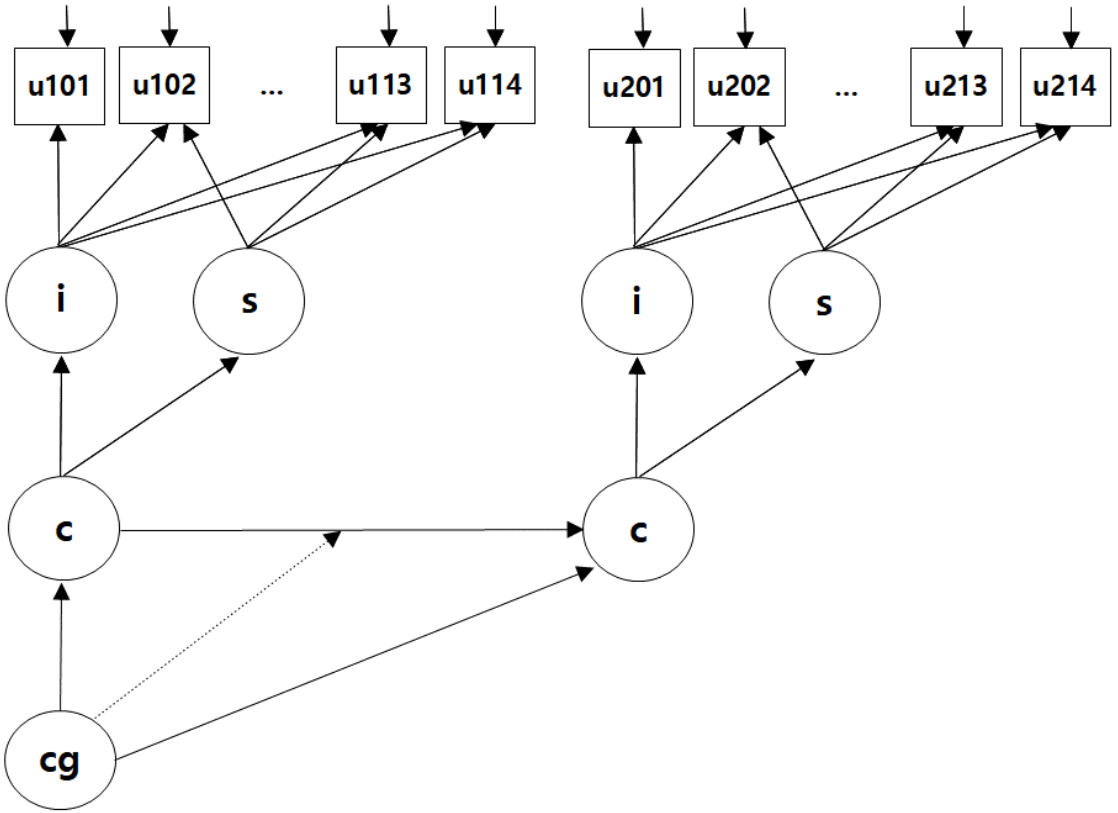


기부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둘째, 나눔 행동의 종단적 양상에 따라 도출된 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전이를 보이는가?

=>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방법

셋째, 나눔 행동의 양상에 따른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 카이검증과 다항로지스틱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

넷째, 나눔 행동의 양상에 따른 집단의 신체. 정신건강은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with known class; Muthén & Muthén, 1998-2015)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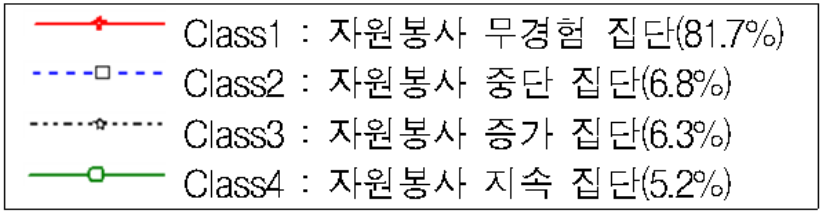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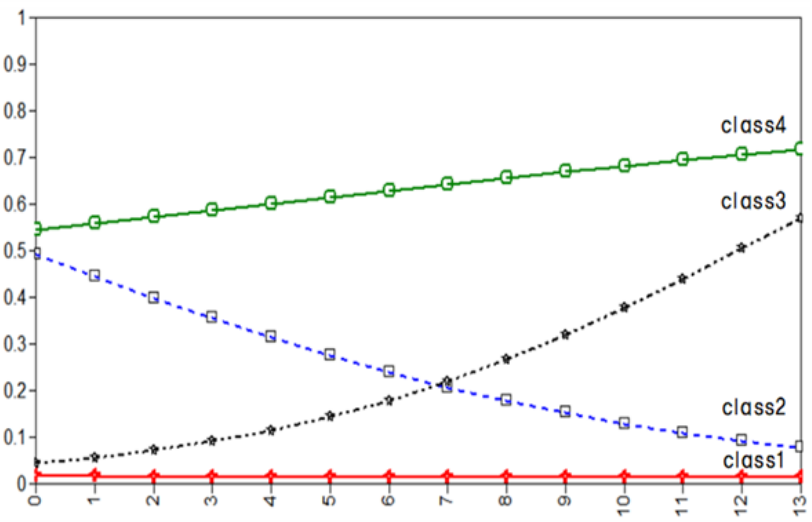
연구결과와 논의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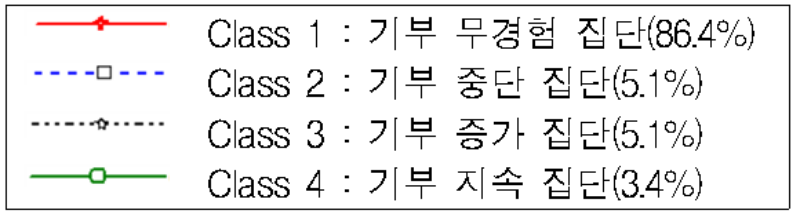
연구결과와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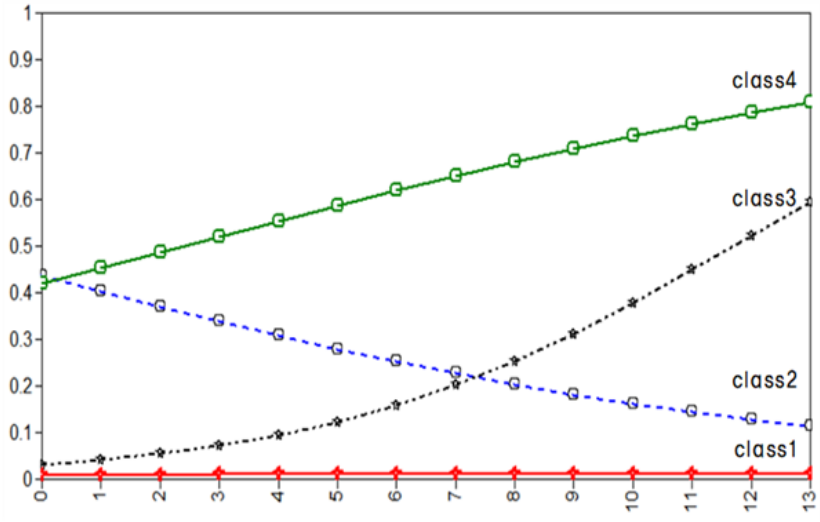
1. 나눔 행동의 변화양상을 통해 나타나는 유형





[그림 5] 자원봉사의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





[그림 6] 기부의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결과와 논의

- ✓ 14년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원봉사 무경험 집단이 81.7%이고 기부에 참여하지 않은 기부 무경험 집단이 86.4%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고경환 외(2018)의 조사에서 기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3.2%와 비슷한 경향
- ✓ 비교하여 14년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집단의 비율이 5.2%(자원봉사 지속 집단)이고, 기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이 3.4%(기부 지속 집단)로 나타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6.9%로 나타난 이상철 외(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2.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나눔 행동 집단 유형

<표 8> 잠재전이분석결과 도출된 10가지 집단 유형

구분	패턴번호 / 집단명		1 나눔 행동 무경험 집단	2 자원봉사 무경험/중단 집단	3 자원봉사 증가 집단	4 자원봉사 지속 집단	5 나눔 행동 무경험/중단 집단	6 나눔 행동 무경험/증가 집단	7 나눔 행동 증가 집단	8 나눔 행동 중단/증가/지속 집단	9 지속적 자원봉사/기부 무경험/중단 집단	10 지속적인 나눔 행동 집단	전체
자원봉사	자원봉사 무경험 집단	n	11,579	424	104		952	609					13,668
		%	100.0	68.5	32.8		58.6	48.8					81.7
	자원봉사 중단 집단	n		195	94		673		16	166			1144
		%		31.5	29.7		41.4		23.2	27.1			6.8
	자원봉사 증가 집단	n			119	29		638	28	232			1046
		%			37.5	41.4		51.2	40.6	37.8			6.3
	자원봉사 지속 집단	n				41			25	215	58	539	878
		%				58.6			36.2	35.1	100	100	5.2
기부	기부 무경험 집단	n	11,579	619	317	70	1128	705	15		31		14464
		%	100	100	100	100	69.4	56.5	21.7		53.4		86.4
	기부 중단집단	n					497			331	27		855
		%					30.6			54.0	46.6		5.1
	기부 증가집단	n						542	54	257			853
		%						43.5	78.3	41.9			5.1
	기부 지속집단	n								25		539	564
		%								4.1		100	3.4
전체		n	11,579	619	317	70	1,625	1247	69	613	58	539	16,736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69.2	3.7	1.9	.4	9.7	7.5	.4	3.7	.3	3.2	100
		%[3]		12,585(75.2)			2,872(17.2)			1,279(7.6)			100

표 안의 빈칸은 n=0, %=0.0을 의미함

%[2] : 행 기준 100%

%[3] : 분류된 집단특성의 기준 100%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결과와 논의

- ✓ 김지혜. 정익중(2012)의 연구 결과에서 연구대상자 12,014명 중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하지 않는 경우가 91.5%(10,993명)으로 나타난 점과 유사
- ✓ 14년동안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와 기부에 참여한 집단이 3.2%(539)로 나타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큼. 이러한 결과는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하는 경우가 2.1%(257명)로 나타난 김지혜. 정익중(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
- ✓ 14년간 기부에 참여한 경험은 없으면서, 자원봉사의 참여 무경험, 중단, 증가 집단이 도출된 결과는 대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기부는 참여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음.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결과와 논의

- ✓ 나눔 행동의 무경험/중단 집단(9.7%)과 나눔 행동의 무경험/증가(7.5%)과 같이 자원봉사와 기부를 함께 참여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가 기부를 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눔 행동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이러한 결과는 나눔 행동 참여 경험은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 배기효. 장경은(2014)의 주장을 지지
- ✓ **기부 미참여에서 비정기적 기부행동으로, 그리고 비정기 기부 행동에서 정기적 기부 행동으로 변화**하며 다음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상철 외(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 ✓ 고경환 외(2018)가 밝힌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기부에 참여하고, 기부참여자가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3. 나눔 행동의 양상을 통해 나타난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와 예측

✓ **나눔행동 무경험 집단** : 인천, 경기거주, 저소득층가구(43.3%)와 단독, 조손,소년가장(19.9%)이 전체 집단중에서 가장 많음. 연령은 70대 이상이 45.1%를 차지. 여성이 많고, 무학/초졸이 40%로 학력이 낮았음. 혼인상태에서 사별(16.3%)이 높고, 무교가 50.7%,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32.1%로 전체중 가장 많았고, 장애인인 경우가 9.5%로 높으며, 직종은 농림/어업종사자 26.5%, 단순노무종사자 23.3%로 나타남.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결과와 논의

- ✓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기부 무경험/중단 집단** : 서울에 많이 거주, 일반가구가 77.6%, 연령은 50대(29.3%), 60대(24.1%), 70대 이상(24.1%). 성별이 여성이 많고, 학력은 고졸 34.5%, 4년제졸 24.1%, 종교가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은 안 좋은 경우가 22.4%, 장애인이 8.6%, 직종은 농림/어업종사자 32.1%, 기능/기계조립종사자 21.4%, 관리자 17.9%로 나타남.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결과와 논의

✓ **지속적인 나눔 집단** : 서울에 많이 거주, 일반가구가 93.3%, 연령은 40대(35.1%), 50대(31.4%), 성별이 남성이 많고, 학력은 4년제졸 45.8%, 종교가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고, 직종은 전문가/사무종사자 34.8%, 관리자 33.2%로 나타남. 정규직이 많고, 소득이 높음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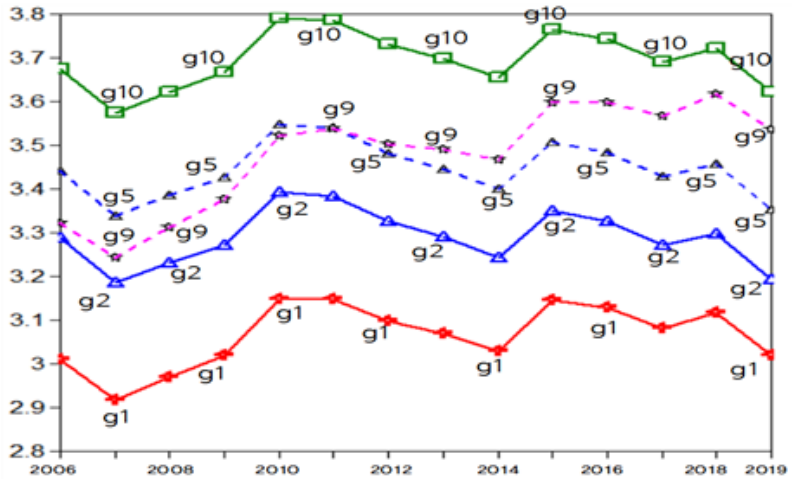
- ✓ 나눔 행동 무경험 집단이 7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65세 이후 또는 75세 이후 기부 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Andreoni, 2001; Landrt et al., 2006)를 지지
- ✓ 지속적인 나눔 집단은 4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40대의 나눔 행동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연구(고경환 외, 2018; 강철희·주명관, 2008; 정진경. 천희, 20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연구소, 2016)를 뒷받침
- ✓ 지속적인 나눔 집단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남성의 자원봉사 참여시간이 더 길고 더 많이 기부한다고 보고한 연구들(김태홍 외, 2007; 이성록, 2002; 이현기, 2012; Einolf, 2011; Andreoni et al., 2003)을 뒷받침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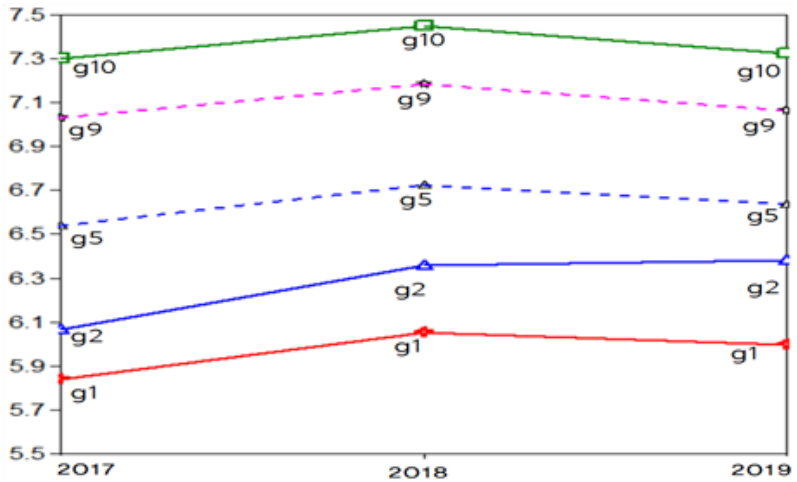
연구결과

4. 나눔 행동의 양상에 따라 도출된 집단별 신체. 정신 건강의 변화추이

g1 : 나눔 행동 무경험 집단
g2 : 자원봉사 무경험/중단 집단
g5 : 나눔 행동의 무경험/중단 집단
g9 : 지속적 자원봉사와 무경험/중단 기부 집단
g10 : 지속적인 나눔 집단



[그림 7] 건강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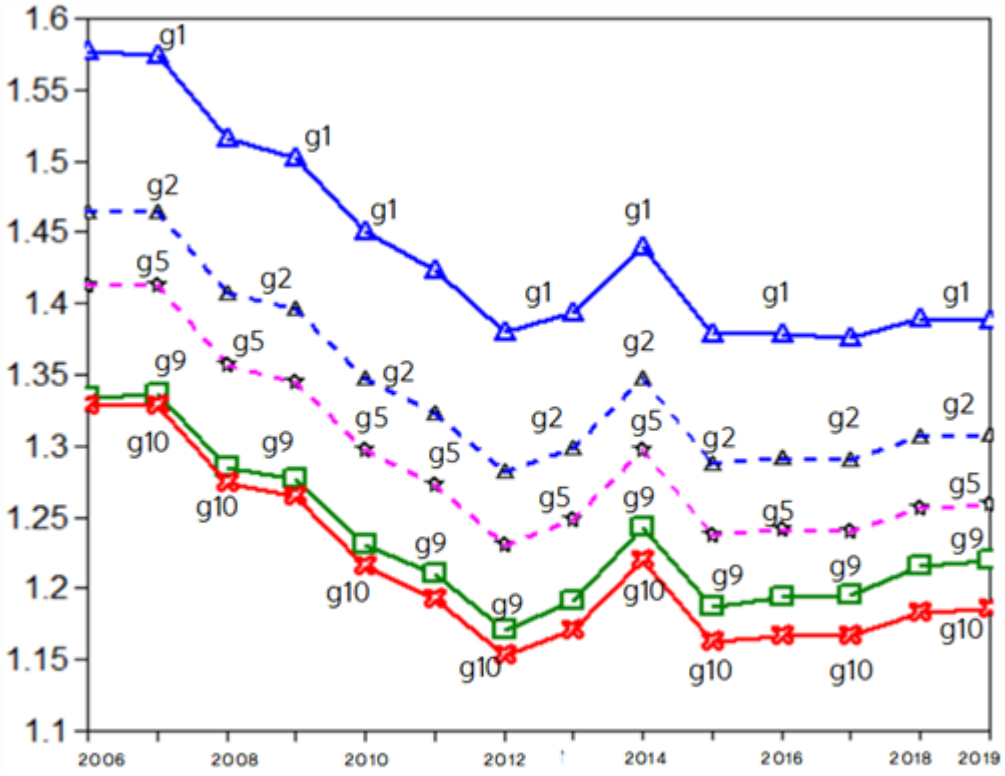


[그림 8] 행복감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연구결과와 논의

g1 : 나눔 행동 무경험 집단
g2 : 자원봉사 무경험/중단 집단
g5 : 나눔 행동의 무경험/중단 집단
g9 : 지속적 자원 봉사와 기부 무경험/중단 집단
g10 : 지속적인 나눔 집단



[그림 9] 우울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 ✓ 건강할수록 나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강철희 외, 2017; Ruthford, 2006; Warburton et al. 2001; Wilson & Musick, 1997; Tang, 2006; Komp et al., 2012)를 지지
- ✓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이경혜·황지민, 2013; Bekkers, 2004; Wilson & Musick, 1999; Bonsdorff & Rantanen, 2011; Greenfield & Marks, 2004)와 일치
- ✓ 자원봉사를 많이 할수록 우울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나타난 연구결과(정은희. 강상경, 2014; 김순자, 2009; 김혜경, 2000; 조예경, 2002; 박금자, 1999; Kim & Pai, 2010; Musick & Wilson, 2003; Thoits & Hewitt, 2001)를 뒷받침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발표 끝. 감사합니다.

COPYRIGHT @ Jacky Kwon 2020. 12. 18. ALL RIGHTS RESERVED

주제1 (기게재) 최우수상

신뢰, 기부태도 및 기부행위간의 구조적 관계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와 기부태도, 그리고 기부의도에 대한 연구

이지예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김상수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와 기부태도, 그리고 기부의도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김상수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이지예

목 차

1. 연구의 배경,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4. 연구방법 및 측정

5. 연구의 시사점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 공식적인 자선단체는 2013년 11,579개, 2017년 13,933개, 2019년에는 14,699개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행정안전부, 2020)

✓ 그러나 2019년 기준 기부금 총액은 6조 3,472억 원으로 전년(6조 4,851억 원) 대비 약 1,379억 원 감소

✓ 거리모금액 역시 2016년 40억 원에서 2017년 39억 원, 2018년에는 약 35억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구세군 나눔 보고서)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기부율은 2015년 29.9%, 2017년 26.7%, 2019년 25.6%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

□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 중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2017년 비해 2019년 6%포인트 늘어난 14.9%를 차지해 점차 증가되는 수치를 볼 수 있음

➢ 기부 포비아(phobia)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대다수 해당 자선단체가 사회로부터 획득한 신뢰(trust)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인 차원의 심리적 요인들(박종철·이용운, 2012; Harvey, 1990; Sargeant et al., 2000)과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의 다차원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부의도 형성 메커니즘을 도출해보고자 함

- 특히, 기부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기초로 기부자의 태도 구조(attitudinal construct)를 분석, 기부의도를 살펴보고자하며, 자선단체의 신뢰적 속성은 3가지로 구분하여 기부의도에 미치는 그 역할을 분석할 것임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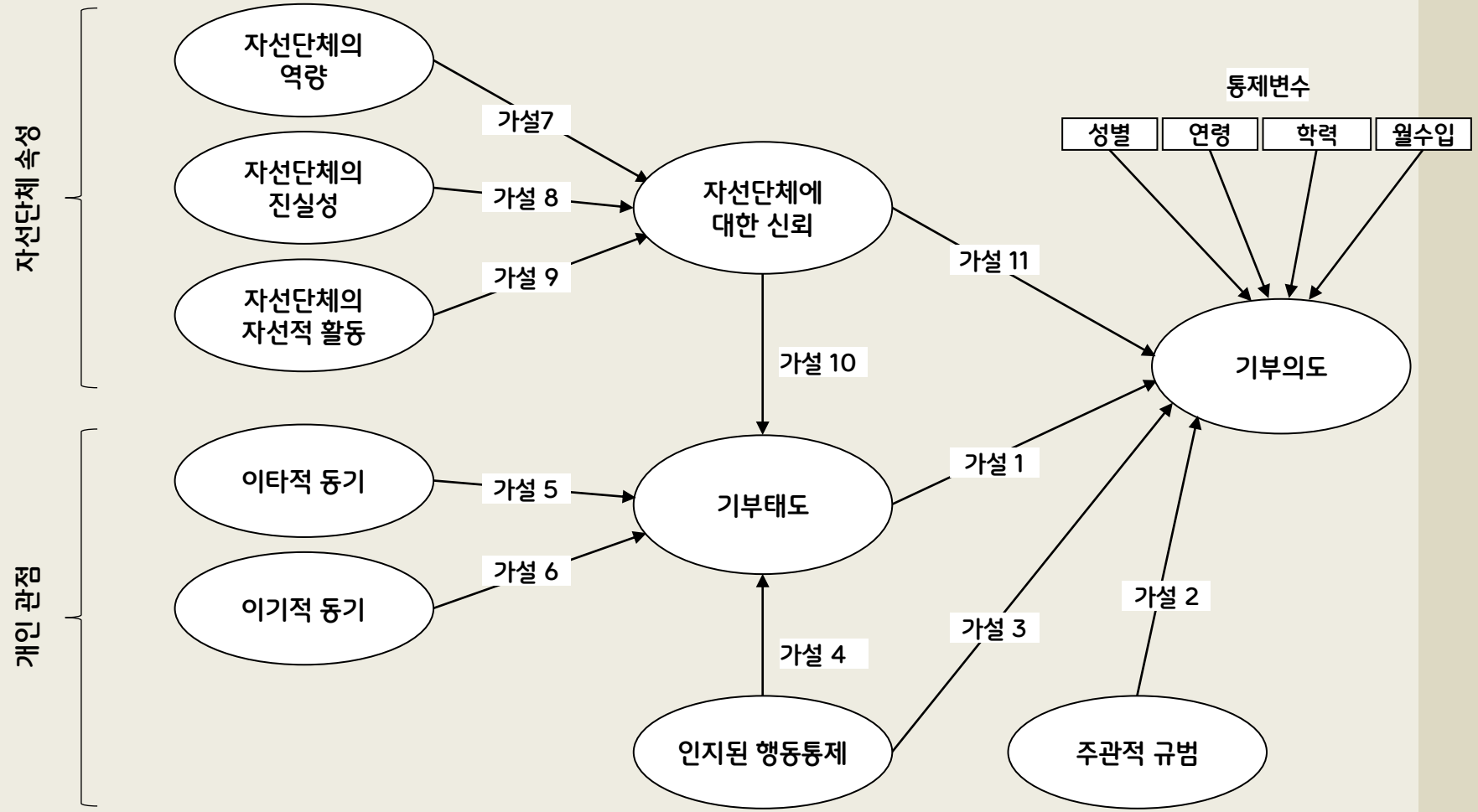
□ 계획된 행동이론

-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의 중요개념은 행동에 대한 의도(behavioral intention)
- 즉, 특정한 행동 수행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관한 의사를 말하는 것(Montano et al., 1997)
-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그리고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 신뢰를 상대방이 한 말과 약속이 믿을 만하고,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Schurr & Ozanne, 1985)
- Alhidari et al.(2018)는 Mayer et al.(1995)가 주장한 신뢰의 세 가지 차원인 진실성(integrity)과 역량(ability), 그리고 자선적 활동(benevolence)을 바탕으로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를 설명함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자선단체 속성
개인 관점
자선단체의 역량
자선단체의 진실성
자선단체의 자선적 활동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인지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기부태도
기부의도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월수입
가설7
가설 8
가설 9
가설 10
가설 11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가설 5
가설 6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 계획된 행동이론: 기부의도의 선행요인

- **기부태도는 기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 혹은 마음의 경향을 의미**
- 기부라는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이는 곧 기부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Bandura, 1982)
- **주관적 규범은 개인을 둘러싼 주변인들이 기부 참여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강압; coercion)**
- 상호의존적 자아성향이 강한 문화권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고(Markus & Kitayama, 1991), 사회적 관계성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행동기준이 됨(Kim, 2002)
- **인지된 행동통제는 본인이 실제로 기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이를 실행할 능력이 된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Bouchard & Loehlin, 2001)**
- 경제적 능력, 기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자기효능감 등

  - *가설1. 개인의 기부태도는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개인의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개인의 인지된 행동통제는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개인의 인지된 행동통제는 기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 개인의 동기요인과 기부태도

- **계획된 행동의도(TPB)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태도는 행동에 대한 신념에 의해 형성(Ajzen & Fishbein, 1980), 이러한 행동에 대한 신념은 동기요인으로 작용을 하여 태도에 영향을 미침**
- 개인의 기부 동기에는 순수하게 타인을 돕고 싶은 이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강철희, 2004; 김세범·류방, 2012; 김용준·김주원, 2005; Bendapudi et al., 1996)
  - ✓ Ex) 개인이 사회봉사 또는 자선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족감과 보람 혹은 기쁨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이타심에 의해 사회적인 선행을 행한 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Howard, 1982).

  - ➢ *가설5. 개인의 이타적 동기는 기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가설6. 개인의 이기적 동기는 기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 자선단체의 3가지 속성과 신뢰

1) 자선단체의 역량

- Mayer et al.(1995)은 신뢰 형성에 있어 조직의 역량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자선단체가 얼마나 뛰어난 경영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기금을 효과적이고 믿음직스럽게 운용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는 기부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됨**(Morgan & Hunt, 1994; Pavlou & Dimoka, 2006)
- 자선단체는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즉 대리인(Agency)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은 단순히 어려운 누군가를 위한 기부금 획득의 모습으로만 볼 수는 없음(Sargeant & Lee, 2002).

➢ *가설7. 자선단체의 역량은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 자선단체의 3가지 속성과 신뢰

2) 자선단체의 진실성

- 사람들은 윤리적 과실을 범한 자선단체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부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높은 우려를 표명(van Iwaarden et al., 2009) **모금 비율은 해당 자선단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입증에 비례 됨(Sargeant et al., 2006; Tonkiss & Passey, 1999)**
- **기부자들은 자선단체들이 윤리적 사명에 따라 진실하게 기부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긍정적 영향**

  ➢ *가설8. 자선단체의 진실성은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선단체의 자선적활동

- **자선단체가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개인 중심의 활동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활동(Mayer et al., 1995; McKnight et al., 2002),** 이 또한 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Doney & Cannon, 1997)

  ➢ *가설9. 자선단체의 자선적 활동은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와 기부태도 및 기부의도

- Dwyer et al.(1987)의 연구에서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기부자들에 비해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금전적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줌
- 자선 마케팅 분야의 연구들에서도 자선단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가 기부자들의 기부 지속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e.g., Bekkers, 2003; Saxton, 1995)
- Burt와 Dunham(2009)는 자선단체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온라인 기부에 대한 기부자들의 관심 및 그들이 기부한 금액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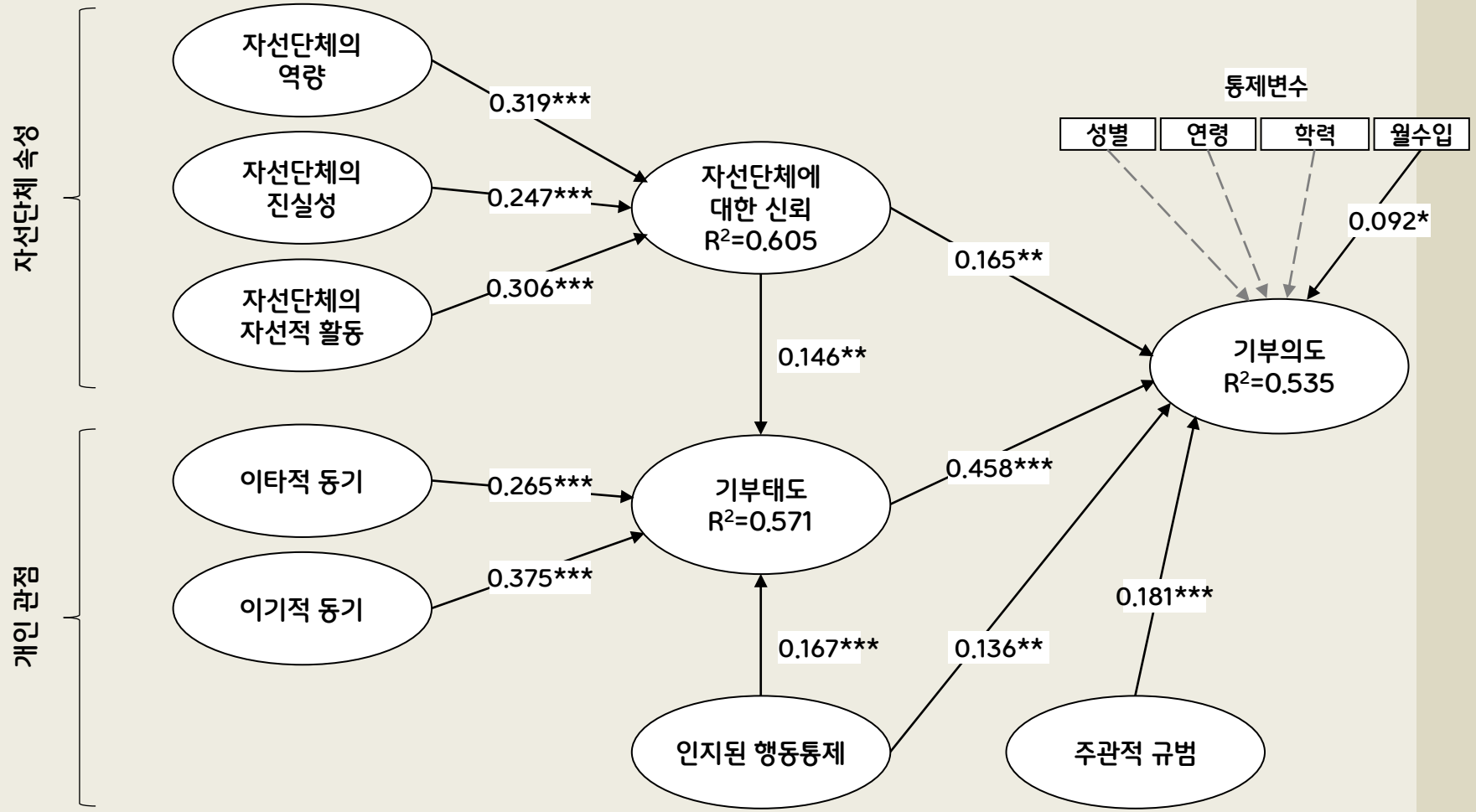
  - 가설10.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는 기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1.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 방법

□ 측정도구

1) **계획된 행동이론:** Ajzen과 Fishbein(1980)의 근거를 두고 기부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을 측정
2) **기부의도:** Bock et al.(2005)이 제시한 항목을 수정 및 활용
3) **이기적 동기:** 자긍심, 체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존재감, 자아실현, 즐거움, 죄의식이나 기분 나쁨, 회피 등의 변수를 이용
4) **이타적 동기:** 타인에 대한 도움 기회, 공동체에 대한 도움, 사회 환원, 대의명분 후원, 사회적 책임, 사회적 정의, 사회적 규범 등의 변수를 이용하였음(김주원·김용준, 2008; 노정식 외, 2008; Dolnicar & Randle 2007; Sargeant, 2001).
5) **자선단체의 역량, 진실성, 자선적 활동, 그리고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Alhidari et al.(2018)의 연구로부터 도출

V. 분석결과


자선단체 속성
개인 관점
자선단체의 역량
자선단체의 진실성
자선단체의 자선적 활동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0.319***
0.247***
0.306***
0.265***
0.375***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R²=0.605
기부태도 R²=0.571
인지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
0.146**
0.165**
0.458***
0.167***
0.136**
0.181***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월수입
0.092*
기부의도 R²=0.535

VI. 연구적 의의

- **개인 기부자의 기부 형태 및 유형을 분류함으로 기부시장의 세분화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알 수 있음**
- **기부자가 자선단체에 대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느낀다면 이는 기부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의 기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발견**
  - ✓ 그러므로 자선단체는 기부자들로 하여금 호의적이며 진정한 신뢰를 형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활동 모습을 동영상과 같은 매개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홈페이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부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또한 믿음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일반시민의 기부행동유형 분석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일반시민의 기부행동유형 분석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2020 기빙코리아 조사결과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기빙코리아 Giving Korea

재난구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 (성별,연령,교육수준,종교,소득수준)

2. 개인의 인지적 요인

- 사회적 책임감, 기부에 대한 도덕적 규범,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등

3. 재난관련요인

- 피해규모,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정부 대응에 대한 인식, 언론의 관심 등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부행동

- 재난으로서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성, 피해의 확산
- 피해지역의 구분 불가능
- 기부자와 재난피해자간 구분의 어려움

- 한국의 코로나19: 초기단계 피해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기존 재난구호 기부행동 예측 요인만으로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시민들의 기부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님

재난 구호기부와 일반기부간의 관계

- 재난 구호기부와 일반적 (자선)기부간 상관관계
- 이전의 기부경험이 재난 구호 기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재난시기 일반시민들과 기부자들의 기부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경험적 연구 부족

연구문제

- 첫째,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일반 시민들의 기부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둘째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실제 기부자들의 기부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셋째 코로나19 대유행시기 다양한 기부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방법론

1. **연구자료 : 2020 기빙코리아 일반국민 기부행동 조사**
2. **연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2006명
   (주민등록상 지역, 성, 연령 기준 비례할당표집)
3. 조사시기: 8월 12일 ~ 8월 22일
4. 측정도구: 코로나19 관련 기부여부, 기부액 변화, 기부대상변화 및 기부 중단 여부, 이전 기부경험,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 인지적 특성 (사회신뢰도, 비영리조직 신뢰도, 사회적 책임감), 재난관련 특성 (정부대응평가, 타인의 기부,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연구대상자 특성

특성		N	%
성별	여성	1010	50.3
	남성	996	49.7
종교	기독교	412	20.5
	가톨릭	236	11.8
	불교	298	14.9
	기타	16	0.8
	없음	1044	52.0
교육수준	중학교졸업	64	3.1
	고등학교졸업	953	47.5
	대학교 졸업	810	40.4
	대학원이상	179	8.9
연령		Mean 46.8 세	SD 15.0세
월평균가구소득		Mean 423.6 만원	SD 233.3만원

코로나19 관련 기부현황 1

기부 행동		N	%
코로나19 관련 기부	기부함	303	15.1
	기부하지 않음	1703	84.9
	총계	2006	100.0
코로나19 기부분야 (중복응답)	백신개발 및 연구	34	11.2
	사회적 취약계층	176	58.1
	치료의료진 및 병원	114	37.6
	코로나피해자(환자,자가격리자 등)	36	1.8
	기타	15	0.7

코로나19 관련 기부현황 2

기부행동		N		%	
코로나19 기부 시기 (중복응답)	2월	33		10.9	
	3월	102		33.7	
	4월	105		34.7	
	5월	86		28.4	
	6월	51		16.8	
	7월	21		6.9	
기부액	유형	Mean	SD	Min	Max
	현금기부(N=246)	75916.6	387090.8	1000	5500000
	현물기부(N=81)	115397.9	406518.3	1000	2500000

코로나19 대유행시기 기부행동 유형

기부행동 유형		N	%
일반시민 기부행동 유형	비기부자 (이전기부경험x, 코로나기부o)	334	16.7
	신규기부자 (이전기부경험x, 코로나기부o)	12	0.6
	기존기부자 (이전기부경험o, 코로나기부x)	1369	68.2
	습관적기부자 (이전기부경험o, 코로나기부o)	291	14.5
총계		2006	100.0
기부자의 기부액 변화 유형	변화 없음	843	63.9
	기부액증가	192	14.6
	기부액감소	284	21.5
총계		1319	100.0
기부자의 기부대상 변화 유형	변경안함 (기부중단x, 새로운 대상기부x)	899	54.4
	기부대상변경(기부중단o, 새로운 대상기부o)	51	3.1
	기부대상추가(기부중단x, 새로운 대상기부o)	170	12.0
	기부중단자(기부중단o, 새로운 대상기부x)	199	20.2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일반시민 기부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신규기부자		기존유지기부자		습관적 기부자	
		exp(b)	S.E	exp(b)	S.E	exp(b)	S.E
개인 요인	나이	1.045	.022	1.007	.005	.998	.006
	성별(여성=0)	.583	.624	1.004	.134	.988	.180
	가구소득	.999	.002	1.002***	.000	1.002	.000
	교육수준 (대학졸업=0)	2.350	.623	1.792***	.140	2.923***	.186
	종교유무(없음=0)	.817	.617	.874	.137	.665	.183
인지적 요인	사회적 책임감	.834	.631	1.658***	.132	3.372***	.185
	비영리조직 신뢰도	1.668	.555	2.072***	.123	1.968***	.166
상황 요인	정부대응	.985	.411	1.013	.084	.907	.116
	코로나19의 영향	1.310	.337	1.276***	.072	1.413***	.101
	코로나19우려정도	.964	.468	.807	.101	.719	.139
	타인의 기부	2.650	.488	1.043	.102	2.182***	.141
log likelihood		3103.717***					
Pseudo R2		.175					

reference group: 비기부자; * p<.01 *** p<.001

코로나19 대유행시기 기부자의 기부액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기부액 증가		기부액 감소	
		exp(b)	S.E	exp(b)	S.E
개인 요인	나이	.975***	.006	1.012	.005
	성별 (여성=0)	.739	.172	.855	.144
	가구소득	.999	.000	.999**	.000
	교육수준(대학졸업=0)	1.224	.172	.938	.143
	종교유무 (없음=0)	.747	.175	1.052	.145
인지적 요인	사회적 책임감	1.977***	.189	1.082	.144
	비영리조직 신뢰도	.766	.160	.750	.130
상황 요인	정부대응	.892	.111	.887	.091
	코로나19의 영향	.883	.098	1.330***	.082
	코로나19 우려정도	.735	.136	.815	.116
	타인의 기부	1.835***	.137	.695**	.110
log likelihood		2284.286***			
Pseudo R2		.110			

reference group: 기부액 변화 없음; ** p<.01 *** p<.001

코로나19 대유행시기 기부자의 기부액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기부대상변경		기부대상추가		기부중단	
		exp(b)	S.E	exp(b)	S.E	exp(b)	S.E
개인 요인	나이	1.008	.011	.988	.007	1.014	.006
	성별 (여성=0)	.931	.307	1.082	.185	.999	.166
	가구소득	.998	.001	1.000	.000	.999**	.000
	교육수준(대학졸업=0)	1.010	.306	1.492	.184	.916	.164
	종교유무(없음=0)	1.374	.313	.783	.184	1.092	.167
인지적 요인	사회적 책임감	2.539**	.329	1.508	.191	.943	.168
	비영리조직신뢰도	.921	.288	.965	.169	.820	.148
상황 요인	정부대응	.622	.200	.871	.120	.980	.107
	코로나19의 영향	1.425	.189	1.239	.108	1.198	.092
	코로나19우려정도	1.172	.238	.825	.146	.925	.134
	타인의 기부	3.682***	.265	2.436***	.150	.983	.128
log likelihood		2310.037***					
Pseudo R2		.114					

reference group: 기부대상 변화 없음; ** p< 01 *** p< 001

연구의 함의: 코로나19시기 기부유형의 특성

- 새로운 기부의 기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
- 재난상황에서 기부행동 변화보다는 유지 경향
- 재난관련 일시적, 특별 기부로 기존 기부를 변화시키지 않음

- 사회적 책임감: 재해상황에서 기부액 유지 또는 증가 가능성
- 타인의 기부에 대한 인식: 기부액 증가, 새로운 기부대상 추가

- 정부대응에 대한 인식, 비영리조직 신뢰도: 기부행동유형의 차이를 이끌어내지 못함

Threat on Society or Health?
How Different Framing of Covid-19 Affects People's Willingness to Give Money and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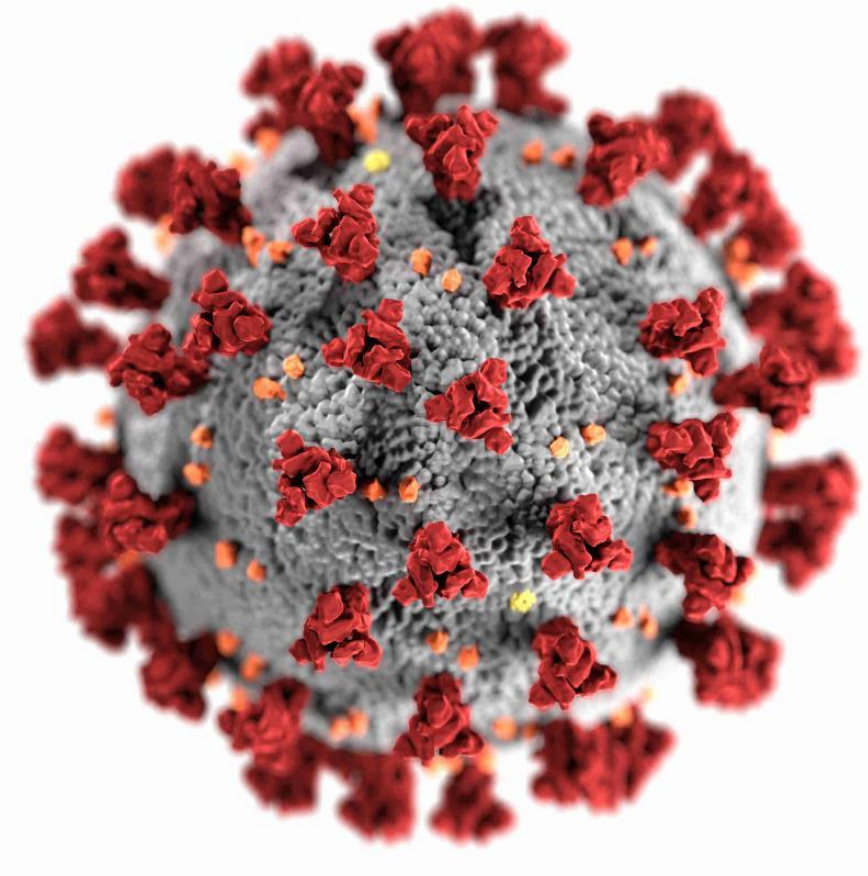
송상영(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지훈(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정은(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신현상(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How Covid-19 Affects People's Willingness to Give Money and Time

Sangyoung Song (Hanyang University)
Jihoon Jhang (Oklahoma State University)
Jeongeun Yoo (Hanyang University)
Hyun Sang Shin (Hanyang University)

Threat on Society



Threat on Health

Covid-19

Threat on Society

Young Old

Threat on Health

Young **Old**

Hao et al., (2020)
Loannidis (2020)

Covid-19 Focus
Society

Perceived
Threat

Prosocial
Behavior

Covid-19 Focus
Health

Perceived
Threat

Prosocial
Behavior

Covid-19 Focus
Society

Perceived
Threat

Money
(donation)

Time
(volunteering)

Covid-19 Focus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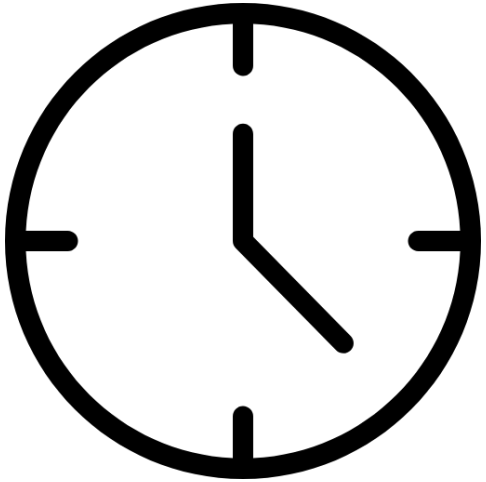
Perceived
Threat

Money
(donation)

Time
(volunteering)

Money
(donation)

Time
(volunteering)



Psychological Safety-Seeking Mechanism (Schaller, 2016)

Study 1 (Controlled Random Experiment)

Process & Stimuli

How does COVID-19 impact our society?

Social Impact of COVID-19

COVID-19 Affects Many People

We are facing a global health crisis unlike any in the 75-year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 one that is killing people, spreading human suffering, and upending people's lives. But this is much more than a health crisis. It is a human, economic and social crisis.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which has been characterized as a pandemic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s attacking societies at their core.

The COVID-19 outbreak affects all segments of the population and is particularly detrimental to members of those social groups in the most vulnerable situations, continues to affect populations, including people living in poverty situations, older pers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youth, and indigenous peoples. If not properly addressed through policy the social crisis created by the COVID-19 pandemic may also increase inequality,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global unemploymen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How does COVID-19 impact your health?

Health Impact of COVID-19

COVID-19 Affects Many Organs

CDC is actively working to learn more about the whole range of short- and long-term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COVID-19. As the pandemic unfolds, we are learning that many organs besides the lungs are affected by COVID-19 and there are many ways the infection can affect someone's health.

One of the health effects that CDC is closely watching and working to understand relates to COVID-19 and the heart. Heart conditions associated with COVID-19 include inflammation and damage to the heart muscle itself, known as myocarditis, or inflammation of the covering of the heart, known as pericarditis. These conditions can occur by themselves or in combination. Heart damage may be an important part of severe disease and death from COVID-19, especially in older people with underlying illness. Heart damage like this might also explain some frequently reported long-term symptoms like shortness of breath, chest pain, and heart palpitations.

Study 1 (Controlled Random Experiment)

Process & Stimu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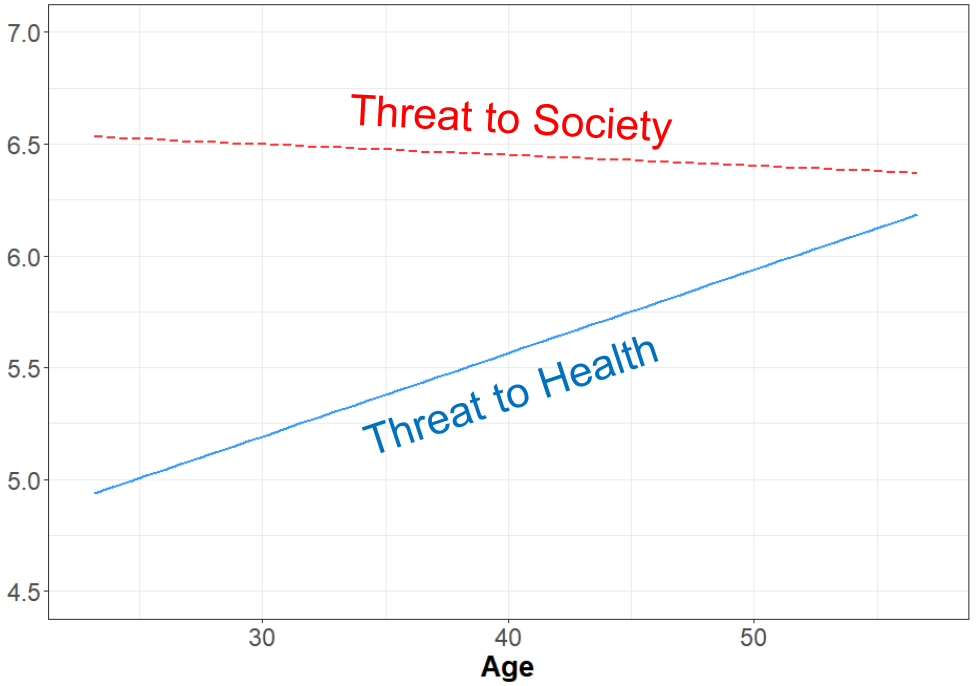
In times of difficulty, we need your help more than 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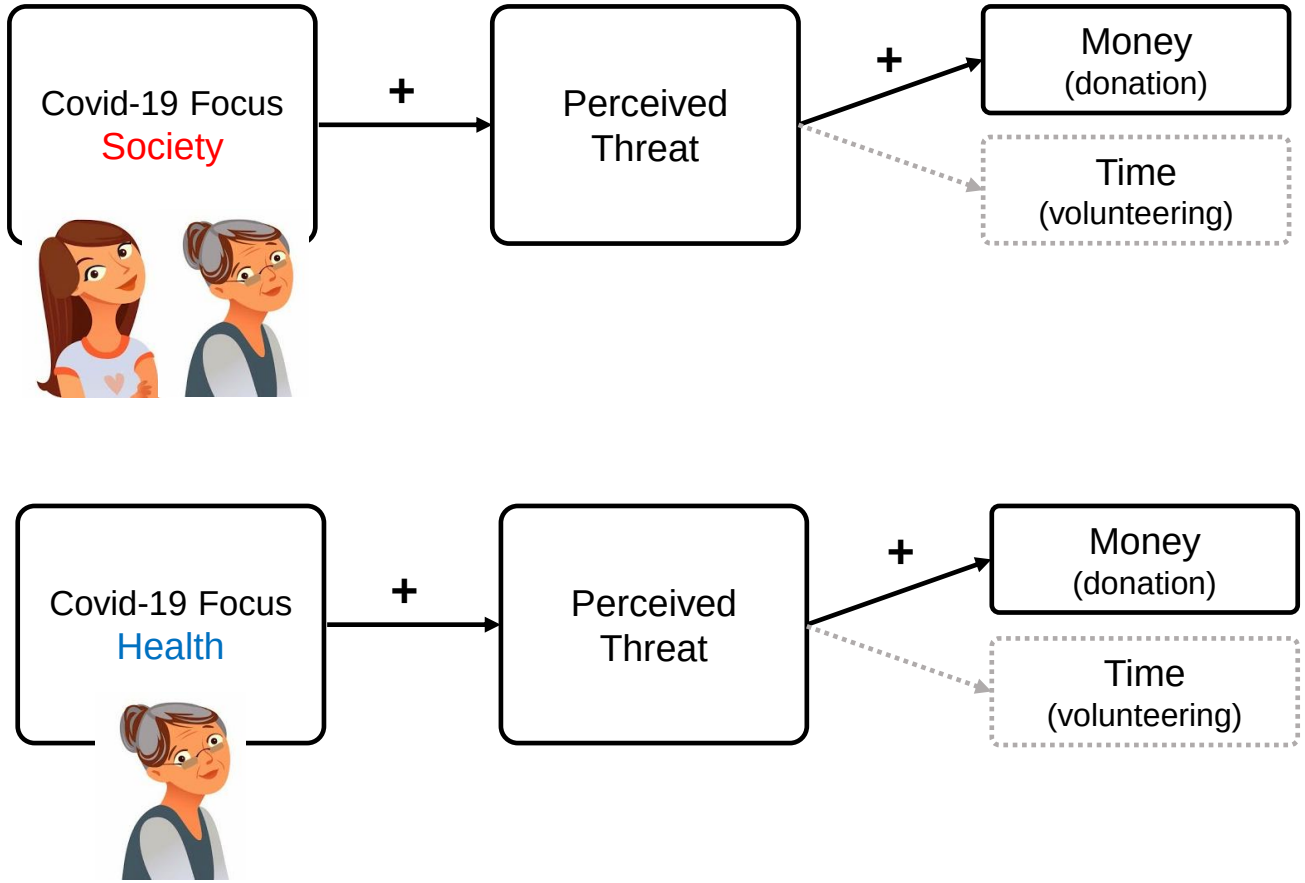
Feed the homeless in your town!

Any help will be appreciated (e.g., time, money, etc.).

Study 1 (Controlled Random Experi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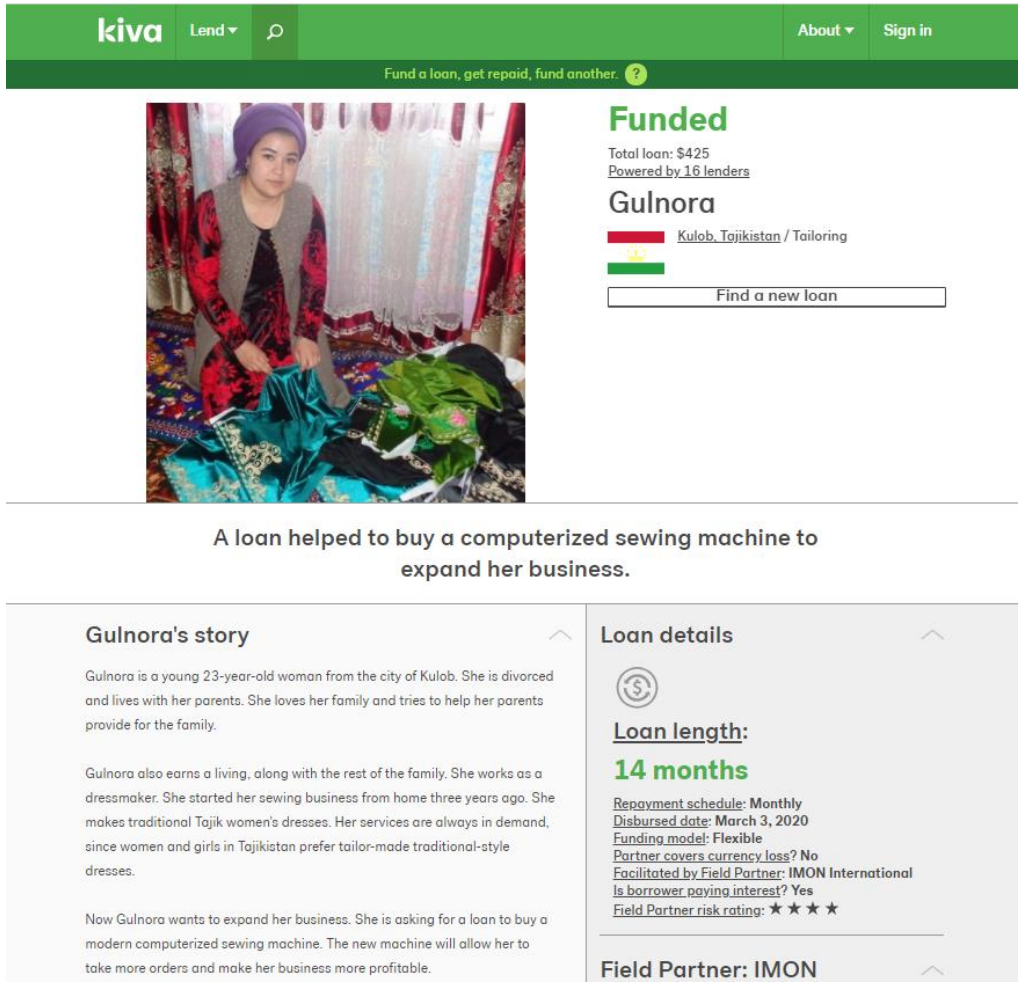
Results





Study 2 (Field Data Analysis)

KIVA.org (prosocial crowdfunding)



Study 2 (Field Data Analysis)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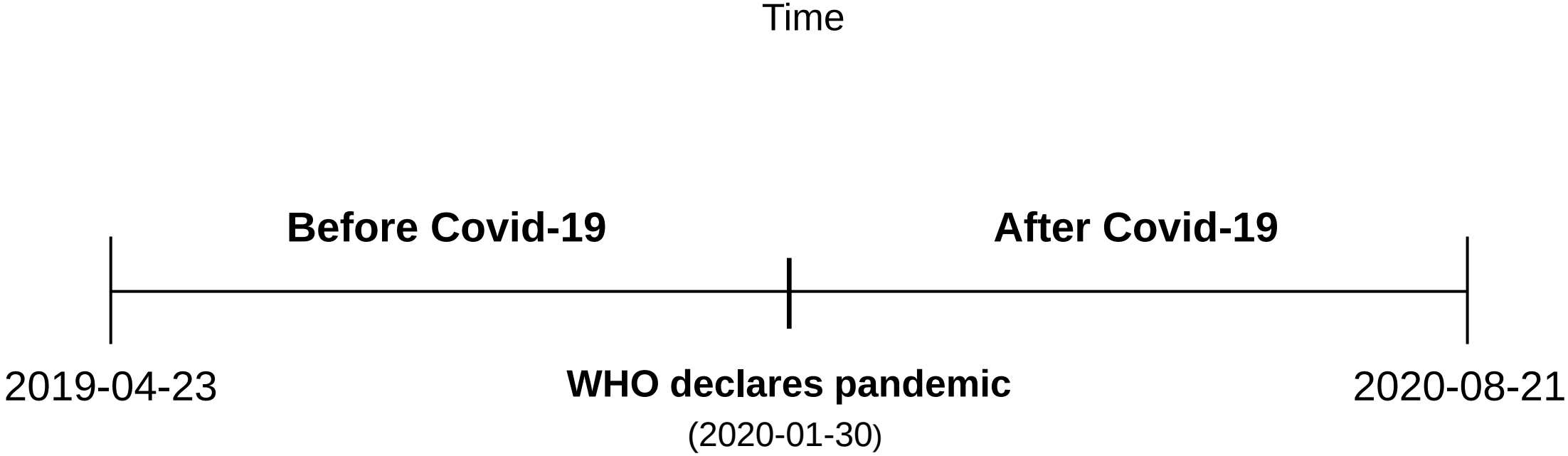
- Number of the observations : 198,419
- Variables of interest

① Time (before Covid-19 vs. after Covid-19)

② Project Type (Society vs. Health)
LIWC (Linguisitic Inquiry and Word Count)

Variables	Range or Levels	Mean (Std. dev) or Percentage
Goal amount	$25 ~ $200,000	764.30 (1,358.83)
Repayment term	3 months ~ 144 months	13.34 (6.63)
Repayment interval*	At end of term / Irregularly / Monthly	At end of term (10%), Irregularly (4%), Monthly (84%)
Long description word count	10 word ~ 307 words	110.20 (40.90)
Short description word count	1 word ~ 45 words	11.94 (5.76)
Gender*	Female / Male / Mixed	Female (74%), Male (18%), Mixed (6%)
Group*	Single / Group	Single (88%), Group (11%)
Currency*	None / Shared / Lender	None (29%), Shared (50%), Lender (20%)
Time*	Before COVID-19 / After COVID-19	Before COVID-19 (70%), After COVID-19 (30%)
Project type*	Social / Health	Social (90%), Health (10%)
Country*	66 countries	Philippines (23%), Kenya (14%), Uganda (4%)
Sector*	15 sectors	Agriculture (29%), Food (19%), Retail (15%)

Study 2 (Field Data Analysis)



Study 2 (Field Data Analysis)

Project Type

Center 182 Uswag Himogaan Women'S Association Group's story

Estela is the President of Center 182 Uswag Himogaan Women's Association, which helps members earn a living. She has been a member of NWTF for many years and takes higher loans that help a lot in establishing and stabilizing her business.

She farms sugarcane and raises pigs.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have banded together to earn additional income for their families while helping the community.

Estela is requesting a loan to purchase piglets, sacks of feed, vitamins, and other supplies needed to raise the pigs. She wants the group to be strong and earn profits to help their families.

Estela still continues to encourage other member of NWTF to join the group to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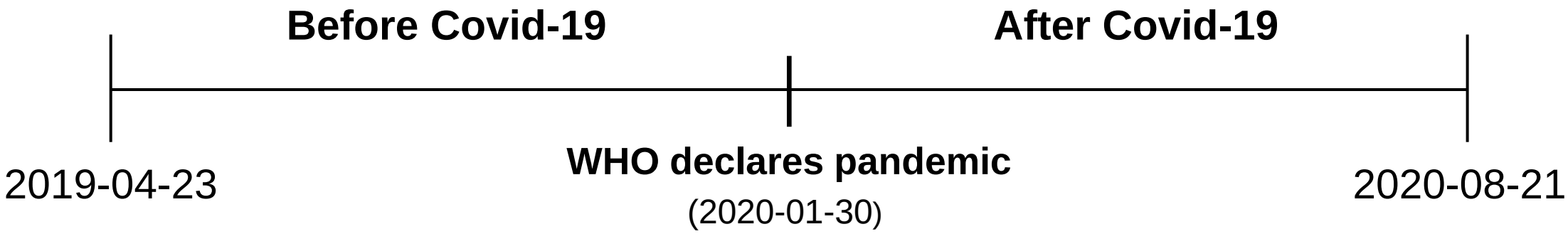
Oscar Ramon's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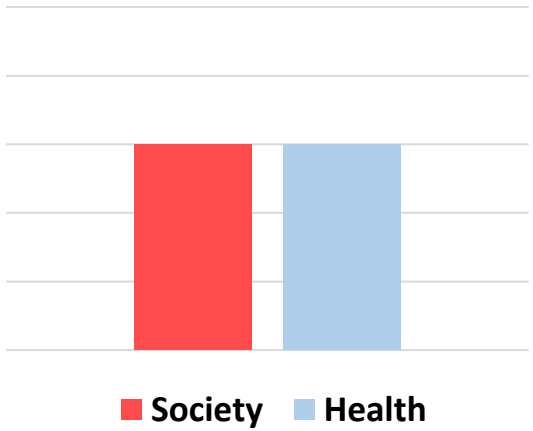
Oscar is 41 years old, single, and lives with his father in Mexico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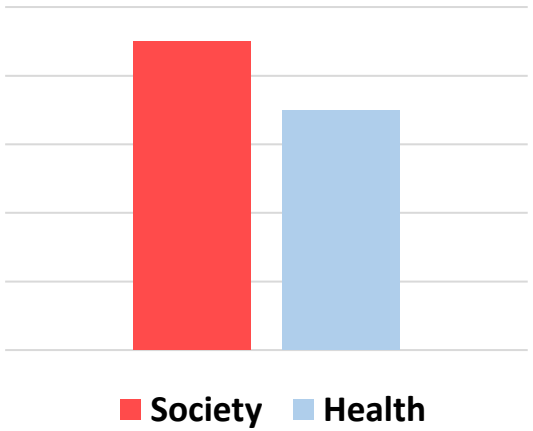
Years ago, his father was diagnosed with a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that has been complicating his health. For this reason, he was admitted into a private hospital where he could receive better medical care. Unfortunately, his father has limited resources and the medical expenses continue to increase. For this reason, Oscar is requesting the assistance of a loan so as not to affect his family's finances.

Oscar is confident that his father's health will improve.

Study 2 (Field Data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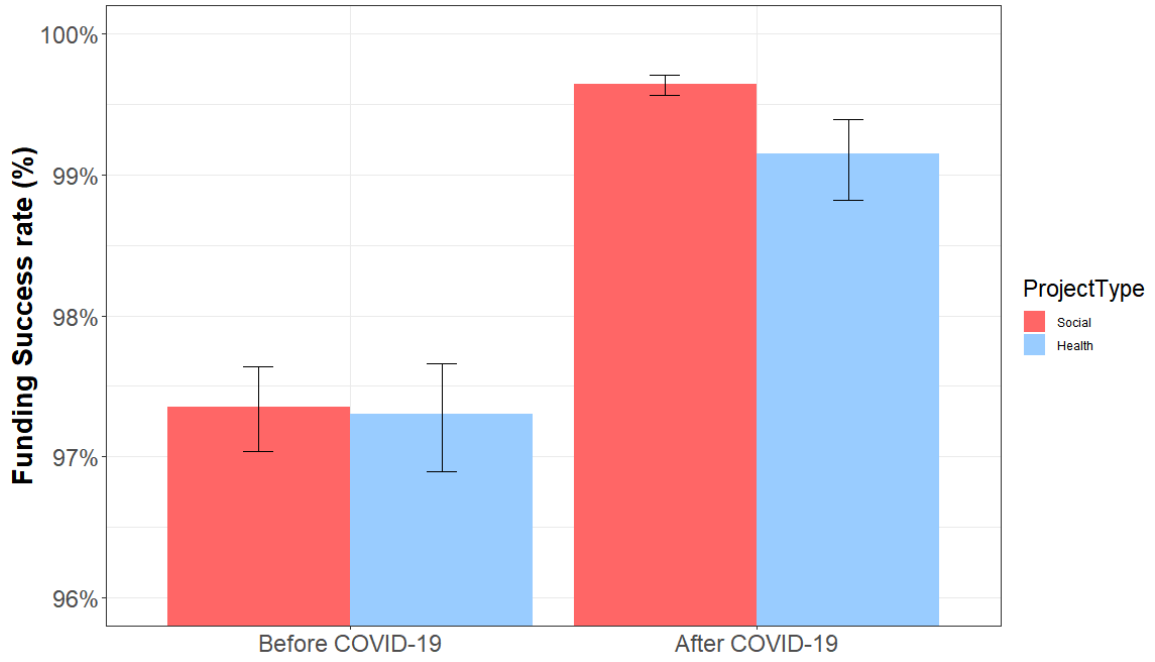


Study 2 (Field Data Analysis)

Results

Logit Analysis

	beta		*z-statistics*
Goal amount	-0.00	***	-11.73
Repayment term	-0.09	***	-38.79
Repayment interval_Irregularly	-0.19	.	-1.93
Repayment interval_Monthly	-0.93	***	-13.61
Long description word count	0.00	***	4.24
Short description word count	0.00		0.17
Gender_male	-1.35	***	-39.32
Gender_mixed	-0.79	***	-8.14
Group_group	0.10		1.12
Currency_none	-4.04	***	-16.45
Currency_shared	-5.44	***	-22.68
TIME (After COVID-19)	1.17	***	7.30
Project Type (Social-focused)	0.02		0.44
TIME x Project Type	**0.86**	***	**4.78**
Country	Yes		
Sector	Yes		
Number of observations	194,523		
R^2	0.35		
AIC	42005.58		
BIC	42962.34		



Conclusion

- People perceived Covid-19 more severely when its social than health impact was highlighted.
- The younger people perceived Covid-19 more severely when the description of Covid-19 was focused on its social rather than health impact, while the older people perceived Covid-19 equally severely independent of the focus.
- Increased perception of Covid-19 severity mediates the effect of Covid-19 focus on the willingness to donate money.
-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Covid-19 influences individuals′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s through a random experiment and analysis of field data from a charitable crowdfunding platform.